

# 아카데미의 진지함 가득찬 독서공동체

‘작은 대학’ 운동 대학가에 신선한 화제… 고전명저 중심의 독서커리큘럼 제공

학습과 토론, 연구와 비판과 같은 대학 본연의 임무이자 정신의 ‘회복’을 주창하며 대학 내의 뜻있는 교수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벌이고 있는 ‘작은 대학’ 운동이 대학가 지식인사회에 신선한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연세대의 박영신(사회학과), 이화여대의 진덕규(정치외교학과) 김왕식(사회생활학과), 서강대의 정인재(철학과) 김학수(신방과) 윤여덕(사회학과) 등 6명의 교수가 주축이 되어 구성하고, 신촌지역 3개대 40여명의 대학생들이 동참하여 소리소문없이 1년반째 계속해 오고 있는, 초대 ‘아카데미’의 진지함으로 가득찬 독서토론 모임이 그것.

2주에 古典 1권 독과, 읽은 책에 대해서 ‘쪽글’이란 이름의 리포트를 통해 요약·소견을 써서 제출, 제출된 쪽글은 회원들이 돌려보며 낭상 토론, 마지막엔 전공교수의 강의... 이렇게 해서 1년에 25권의 책을 읽고, 이를 모두 섭렵한 후에 각자가 정한 한가지 주제에 따라 논문을 써서 내면 참가교수의 ‘만장일치’라는 까다로운 심사조건을 거쳐 ‘졸업장’을 수여받게 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저 타이프하게 운영되는 독서모임과 다를 바 없겠지만 이 ‘작은 대학’은 입학식, 책거리, 졸업식과 같이 儀式이 있는 날은 교수 학생 모두 성장을 함으로써 전통과 권위, 격식을 소중히 여기는 초기대학의 모형을 그대로 재현해 보이고 있다.

## 입학식엔 성장하고 격식갖춰

이들이 현재의 대학에 몸담고 있으면서 ‘작은 대학’이라는 울타리를 다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91년 10월 발족 당시 발표했던 ‘선언서—오늘의 대학을 넘어서’를 보면 쉽게 납득이 간다. 이들이 진단하는 오늘의 대학은 “도덕적 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으며” “대학의 정신이나 이념은 대학 문서에 적힌 한낱 치례에 불과하다”. “흔히 대학을 가르침, 연구, 봉사의 기능으로 분류하여 마치 모든 대학이 존재하는 한 이를 수행한다고 자족하고 있지만, 어느만큼 이 기능을 실행하고 있는가라는 절실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이러한 대학의 풍토에서 성장하는 학생들은 “사유와 반성을 경험하지 못한 채 단순한 규격의 답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며, “비록 전공이나 전문분야가 서로 달라 다양성을 지닌 듯이 보일지는 모르나 모두 ‘영혼이 없는 전문

‘작은 대학’ 운동의 이념은

‘대학찾기’ ‘대학 높이기’ ‘대학 낮추기’

세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더럽혀지고

실추된 대학의 참모습을 찾고,

비판적 지성을 길러

참다운 사람을 배출하는 것이며,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까지

이 운동이 퍼져나가 궁극적으로

삶의 공동체를 이뤄내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가’로 동질화되어 ‘쇠우리’ 안에 갇혀버린 존재’이다. 그 결과 “이들은 획일적인 통제방식조차 아무런 고통없이 순순히 받아들여지고, 알게모르게 새로운 억압체제를 만들어 너무나 손쉽게 스스로를 순복하기에 이를” 정도로 무력한 사람이 되고 만다.

따라서 ‘작은 대학’ 설립자들은 “입신출세의 이기적 수단으로 작용한 오늘의 대학에서 벗어나 공공의 선을 실천하는 집합적 목적이자 수단이 되는 새 대학으로 탈바꿈하여 거듭나야” 함을 역설한다. 박영신 교수는 “부패가 곳곳에 산재한 현재의 대학은 교수 몇몇이 문제를 지적하고 자정에 앞장선다 해서 해결될 규모가 아니”어서 “뜻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이상적인 대학의 모형을 만들었다”며 ‘작은 대학’의 설립배경을 밝힌다.

## 현실대학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에서 시작

이처럼 현재의 대학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에서 시작된 ‘작은 대학’ 운동은 그 이념에 있어서나 운영방식, 교육내용에 있어 당연히 기존의 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 먼저 그 이념은 ‘대학찾기’ ‘대학높이기’ ‘대학낮추기’ 세가지로 요약되는데, ‘작은 대학’을 통해 대학의 참모습을 찾고, 비판적 지성을 길러 참다운 사람을 기르며, 마지막으로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운동이 퍼져나가 삶의 공동체를 이루려는 것이다.

‘작은 대학’에서는 그 구성원의 명칭에서도 흥미를 끄는데, 흔히 모임의 ‘회장’을 의미하는 직책에 ‘대들보’라는 명칭을 사용(박영신 교수가 맡았다)하고 있으며, 대들보를 받치는 ‘큰기둥’(교무담당 진덕규, 학생담당 정인



작은대학 졸업논문 심사 장면.

재, 연구담당 윤여덕, 총무담당 김학수 교수가 맡았다)과 ‘작은기둥’(학생들) ‘작은대들보’(학생회장) ‘중간기둥’ ‘중간대들보’ 등으로 조직이 짜여져 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2주에 1권씩, 1년여에 25권을 독파해야 하는 독서커리큘럼. “대학 3, 4학년이 읽어낼 수 있는 수준의 고전적인 학술명저로, 현실과 미래에서도 그 영향력이 지속될 저술” 가운데서 선정했는데, 현재 3기째 계속 같은 목록이다. 먼저 ‘작은대학’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15권의 ‘기본필수도서’가 있다. 「국가론」(플라톤) 「정치학」(아리스토텔레스) 「인구론」(말더스) 「국부론」(스미스) 「사회계약론」(루소) 「자유론」(밀) 「리바이어던」(홉스) 「시민정부론」(로크) 「미국민주주의론」(토크빌)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베버) 「공산당선언」(마르크스) 「사회분업론」(밀케임) 「법철학」(헤겔) 「실천이성비판」(칸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니체)이다.

그리고, 제시된 분야 내에서 학생 각자가 8권을 골라 읽는 선택도서가 있는데 ①중국의 고전 「논어」 「맹자」 「대학」에서 1권 ②한국의 고전 「삼국유사」 「삼국사기」 「목민심서」 「매천야록」 「한국통사」 가운데서 1권 ③역사분야 「역사의 연구」 「로마멸망사」 「자본주의 발달사」 중에서 1권 ④사상사분야 「역사와 계급의식」 「노예에로의 길」 「유한계급론」 「민주사회주의론」에서 1권 ⑤사회이론분야 「과학혁명의 구조」 「지성인의 미래와 새 계급의 성장」 「경제민주주의론」 중에서 1권 ⑥현대문명론분야 「세계신문의 역사」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미디어의 이해」 가운데서 1권 ⑦종교분야 「예수의 생애」 「공자」 「세속도시」 중에서 1권 ⑧예술 및 미학분야 「예술이란 무엇인가」 「미학이론」 「포스트모더니즘」 가운데서 1권이다. 이 외에 기본필수도서와 선택도서를 독파한 사람에게 한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읽을 수 있는 임의도서 2권이 더 포함된다.

“처음에는 대학생들의 ‘읽기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되나 싶어 참담했다”고 말하는 김학수 교수는 회수를 거듭할수록 읽는 속도, 읽는 방식이 변화해 가는 걸 보며 큰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혹독한 훈련을 참고 따라온 학생들에 한한 것으로, 제1기 28명이 시작해 7명만 졸업했고, 2기 역시 8명만 남아 있는 것에서 보듯 “운영은 민주적이되, 교육은 매우 엄격하다”는 방침을 확인케 한다.

‘작은 대학’을 거처온 학생들의 반응은 ‘충만감’ 그 자체다. 김은홍(1기 졸업생, 연대 사회학과 대학원) 씨는 “학과공부도 하면서 이 일을 하는게 여간 힘들지 않았으나, 대학 3년 동안 허탈했던 기분을 작은대학 1년과정이 완전히 보상해 주었다”며 “이게 정말 대학이 아닌가” 반문했으며, 임지훈(3기, 서강대 경제학과 4년) 씨는 “학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조망을 얻을 수 있었”으며, 권진희(1기 졸업생, 이대 정치외교 대학원) 씨는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은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표현한다.

대들보 박영신 교수는 “소문이 나면서 여기 저기서 문의전화가 많다”며, ‘운동’으로 시작한 만큼 ‘작은 대학’ 구로공단 지부, 대전지부와 같이 원하는 대상을 따라 계속 넓혀가겠다고 다짐한다. —정혜욱 기자